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6: 족장 I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6

족장 I

강의 주제: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전개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계획에 대한 밝은 계시를 드러냅니다.

본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로마서9:4-5).

강의 스크립트 6

히브리서11장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읽다 보면 마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의 은혜언약과 한 분 구세주 아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안에서 이 족장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구절인 40절에서 12장 시작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물론 이는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보았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11장은 반복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등등이 있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며 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구약성경은 여러분의 가족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들의 유산을 읽고 계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읽는 것이며 자기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분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읽는 것입니다. 족장시대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적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족장들은 어떻게 성경역사에 대한 패턴을 제공합니까? 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재산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선택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뼈를 묻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언약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그리스도와 오늘날 각각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 줍니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족장들의 시대 전체에 걸쳐서 엮어진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을 추적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그 다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이후 성경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가 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난 분노와 진노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태와 소금과 불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세 도시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소돔에서 피신했던 롯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성경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눅17:32)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첫번째 계명을 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선지자들도 여러 곳에서 이 계명을 말했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지독히도 왜곡되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바로 이것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역사를 위한 모델로서 이들을 의로운 분노와 진노로 다루시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29:23에서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하나님은 같은 경고를 주시게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이사야1:10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9장과 50장에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13장에서 바벨론 민족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이와 같은 주제가 이어집니다. 유다서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용하셔서 그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악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11장에도 영적인 바벨론의 상징을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 줄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약속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 때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여러 곳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불립니다. 바로 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땅과 동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째로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된 약속의 아들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18:19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의 종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멀리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종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만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공경했습니다.

창세기26:3,4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모든 중요한 요소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이 언약이 이삭과도 지속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일한 은혜언약이 창세기3:15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세대에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언약은 이삭 이후로도 계속 지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 여기 멈춰서 저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단한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창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과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자손들은 자라서 미래에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선지서에서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12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한 가문의 머리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친상간의 결과 롯에게서 난 두 아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나라가 태에서부터 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물론 에돔의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엮여져서 율법의 조항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민족들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은 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의 뒷부분에 언급되는 우물의 장소나 제단과 다른 많은 장소들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주어진 자료 안에 있는 방대한 기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쳐야 하는 중요한 구체적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연구를 더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수단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는 이삭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순종 곧 순종이라는 구속적 주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기꺼이 모리아 산까지 장작을 운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기꺼이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고른 신부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약속의 아들 곧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그 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군병들이나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들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삭의 때에 야곱은 선택되었습니다. 창세기28:13-15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26장에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지금 28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야곱은 이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또한 “~할 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진정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다음 두 장인 29장 30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베푹니다.

이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펼치는 것을 통제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선택교리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9:10-13로 가면 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동일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보았듯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구원할 백성을 선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옥에서 자신의 진노의 정죄를 당하게 될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로마서9장이 말하듯이,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언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42장은 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에서는 언약을 깨는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약속의 표지를 받았습니.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에 속한 결과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말은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는 장자권을 한끼 식사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땅을 향한 그의 욕구는 영적인 것 곧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컸습니다. 히브리서12:15,17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를 신약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 사용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은혜언약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으며 이것은 각각 언약을 지키는 것과 언약을 파괴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버리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에서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는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뱀의 후손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 창세기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특히 꿈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이 꿈은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그것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에 대한 꿈을 통해서 이를 확증하시고, 또 야곱이 사다리의 꼭대기를 볼 때 그 위에서 여호와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때 나타나신 분은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앞 강의에서 말했던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벰엘이라고 부르는데 벰엘은 “하나님의 집” “천국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조그만 장소 너머에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 너머, 궁극적으로 그 약속 안에서 그 땅이 상징하는 곳 곧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실현됩니다. 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집이며 그 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1:51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28장의 내용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32장에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고 그와 씨름합니다. 서로 붙잡고 씨름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자의 능력과 겨루어 이긴 사람”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의 모든 자손이 이루는 한 국가 곧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위대한 조직으로 성장할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네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 열두 아들이 태어났습니. 신약성경으로 가서, 그것도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21장으로 가보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예루살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예루살렘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신부와 같다는 등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예루살렘성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21장에서 새예루살렘성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봅시다. 이 열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인 유다는 다말을 통

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다말은 창녀인척 했었습니다. 이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베레스였는데 그 의미는 “범하여진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주 예수님을 “범하여진 것”을 고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열 세대가 지난 후 다윗이 이 계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신약성경의 가장 첫 장 곧 마태복음1장에 실제로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49:10에서 하나님은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5:5에 다윗의 뿌리인 유다지파의 사자로 묘사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양 곧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부분이 전체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은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은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그의 삶에 많은 성공과 실패와 우여곡절을 비롯한 많은 어두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몇몇 부분에서는 도저히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창세기50장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 그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 삶에 늘 따라다녔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그 전체 가문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어질 수 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상태로 마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15:13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사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을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바로 창세기50:25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자신의 뼈를 반드시 애굽에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11:22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이 작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더 읽어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24:32절로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요셉이 원했던 대로 행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출애굽시에 도망할 때 그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죽은 지 사백 년 이상이 흐른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 그 뼈를 묻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다 다룰 수도 없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강조하실까요? 다시 약속으로 돌아갑시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히브리서11장에 분명히 나오듯이 그 땅은 생생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11장은 그들이 이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한 조각의 땅도 부동산의 한 부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서 유산으로 주실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였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유산”이라는 제목을 붙인 강의를 할 때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곳에서도 간략히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속의 땅에 심겨지고 묻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하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과 12장의 시작으로 다시 가봅시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1장은 족장들과 그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위대한 목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이 모든 사람들을 묶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도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족장들에 대한 설명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요셉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 가장 중요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안에서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했으며 다음 강의에서는, 세 인물을 살펴볼 것이며 족장들의 시대 중에 관련이 있는 나머지 공부는 구약에서 할 것입니다.